“어선·양식어업, 이상기후 대비 재해보험 가입 필수”

광주일보가 만난 경제人

주홍보 수협중앙회 전남본부장

어업인 일자리·귀어 교육·수산물 소비 촉진 등 다양한 업무
귀어, 추천하고 싶지만 쉽지만은 않아…힘들 각오하고 내려와야

‘전국 제 1의 수산도시’. 국내 수산 통계가 보여주는 전남의 지표다.

수산물 생산액은 3조를 넘어선 지 3년 째다. 지난해 수산물 생산액(3조 1127억)만 전국(8조 1898억)의 38%를 차지한다. 생산량도 압도적이다. 지난해 바다에서 거둬들인 수산물 생산량은 191만 t. 전국(326만 8000 t)의 58%에 달한다.

18만 7459㏊의 바다에 만들어져 있는 양식 어장은 전국 양식어장의 65.0% 수준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양식 생산량(173만 5000 t)은 전국의 76.4%다. 매일 바다로 출근하는데 필요한 배만 2만 7010척으로, 전국의 42%다.

요즘 해외에서 잘나가는 김만 봐도 ‘수산 1번지’라는 말을 실감나게 한다. 올해 물김 생산량은 40만 8444 t. 기후변화 등으로 지난해(53만 3000 t)보다 줄었는데도 전국(50만 8782 t)의 80%를 차지한다. 생산액도 7966억원 규모로 전국 전체 생산액(9742억)의 82%에 달한다. 진도수협이 지난해 2000억원의 위판고를 올린 것도 늘어난 물김 생산이 한몫을 했다.

바다를 생계의 터전으로 삼는 사람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도시로 떠나는 인구가 끊이질 않고 저출생에 따른 어촌 인구 감소에다 고령화로 바닷가 마을이 썰렁해진 지 오래지만, 아직 3만 4620명(전국의 38.1%)이 바다를 보며 산다.

바다도 기후 변화로 변했다. 바다 온도가 오르면서 생태계가 달라졌고 해마다 잡히던 물고기가 보이지 않는다. 수확량도 갈수록 줄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제 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서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다.

그래도 바다를 등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몸은 힘들고 소득 내기도 쉽지 않지만 스마트 어업으로, 친환경 양식장으로,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 사업으로 미래 어업을 개척하겠다며 ‘귀어’하는 새식구(2023년 279가구)도 전국에서 가장 많다.

‘어업인이 부자되는 어부(漁富)의 세상’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어업인의 꿈과 희망이 가득한 어촌!’, ‘살기좋은 희망찬 어촌’, ‘지속가능한 수산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수협중앙회 역할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전국 수산인 104만명의 권익 강화를 위해 전남 19개(민물장어양식수협 제외) 수협을 비롯, 전국에 91개 조합을 두고 교육지원·경제사업·상호금융·공제보험사업 등을 추진하는 수협이 성장하는 건 국내 어업인들과 국내 수산업의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얘기다.

광주일보는 최근 지역 수산인들의 안정적 어업활동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주홍보 수협중앙회 전남본부장을 만났다. 여수 출신으로 여수고, 부산수대(현 국립부경대)를 나왔지만 수협중앙회 본부(서울)에만 있다가 지역본부로는 지난해 1월부터 근무한 전남이 처음이다. 지인들도 많아 요즘 ‘물 만난 듯’ 고향 근무에 진심이다.

주 본부장은 수협 사회공헌활동의 하나인 푸른바다 가꾸기 운동에 참여하면서 접한 ‘스킨스쿠버’에 꽂혀 틈만 나면 물 속에 들어가는 ‘아쿠아맨’이기도 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협 전남본부 사업 중 가장 큰 게 뭔가.

▲정책보험, 공제보험 사업이다. 업무의 80%가 정책보험이다. 특히 전남의 경우 양식 어장이 많아 이 분야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보험 업무의 비중이 크다. 바다는 하루에도 어떻게 바뀔 지 예측이 어렵지 않느냐.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확보해 어업인들의 경영 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 중요하다. 수협중앙회 차원에서는 상호 금융 분야가 규모가 크다. 거기서 수익을 내줘야 다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종류가 많나.

▲정책보험의 경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등 4가지다.

-재해보험에 가입했는데 고수온에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못받는다거나, 내는 보험료는 많은데 기준에 못 미친다고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보상액을 받는다는 어업인들 불만이 많았다.

▲기상을 예상하지 못하던 시절에는 자신의 목숨을 맡기고 바다에 나가지 않았나. 위험성도 클 수 밖에 없다. 민간 보험에서는 그만큼 손해율이 크다고 보고 있다. 보험료를 높게 책정한 거다.

어업인들 입장은 그게 아니다. 일단, 양식어장을 하거나, 어선 어업을 하던, 투입 비용이 많지 않은가. 매번 큰 수익을 버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매년 높다. 보험에 들어도 원하는 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하기라도 하면 억울하게 생각한다.

예전 볼라벤·덴빈(2012년)이 왔을 때 당시 피해가 컸었다. 수산생물 피해액만 2400억원에 달했다. 보험료 부담 등으로 미처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어민들 피해도 컸다. 피해가 워낙 커 보상해줘야할 재보험사들 손해율도 700%까지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약으로 분리하여 필요한 어민만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어업인들도 원했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다.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선택적으로 가입해서 재해보험 가입 비용을 낮추고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손해율을 낮출 수 있었다. ‘내 양식장이 있는 바다는 기온이 낮아 고수온과는 관련 없다’, ‘우리 바다는 수온이 높아 저수온 특약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다가 변했다. 항상 온도가 낮았던 바다에 느닷없이 고수온 현상이 발생했다. 적조가 발생하지 않던 바다에 적조가 발생했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던 어민들 입장에서는 낭패를 볼 수 밖에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경우 육상 넙치를 시작으로 지금은 28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전남의 경우 지방비 지원액도 많다. 최근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금어기에도 보험료를 내는 어민들 부담을 고려해 이 기간 보험료도 지원한다. 고수온만 하더라도 올해부터 예비특보 발령기준이 완화됐다. 예전엔 예비특보 이후 주의보 발령까지 기간이 짧아 예비 특보 발령이 난 뒤 보험 가입 절차를 밟으려고 하던 어민들이 가입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었지만, 예비특보가 일찍 발령되어 고수온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확보되었다.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인터뷰 전문은 인터넷 광주일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IA타이거즈 1위 질주 힘입어 챔스필드 인근 외식업 매출 11%↑

전국 야구장 인근 대부분 상승

KIA타이거즈가 올 시즌 1위를 질주하면서 인근 식당 매출이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IA 타이거즈 뿐 아니라 올해 한국프로야구가 역대 시즌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우는 등 인기몰이를 하면서 야구장 인근 외식업 매출이 전년 대비 최대 23%가량 상승했다.

25일 한국신용데이터가 9개 야구장(홈경기 기준) 주변 외식 사업장에서 발생한 카드사 매출을 분석한 결과, 부산 사직구장(홈팀 롯데 자이언츠) 인근 외식업 일평균 매출이 전년보다 22.9% 증가해 전국 야구장 중 가장 높았다. 잠실구장(두산 베어스·LG 트윈스) 인근 외식업장 매출은 18.5% 늘었으며 대전구장(한화 이글스) 16.2%, 광주구장(KIA 타이거즈) 11.0%, 창원구장(NC 다이노스) 5.0% 순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올해와 작년 시즌 전반기(개막~올스타 브레이크 이전) 경기 개최일(경기 시작 전 3시간 전·종료 후 3시간)에 경기장 1.5㎞ 반경 이내 외식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카드사 매출 일평균을 냈다.

사직구장(롯데) 인근 매출 증가에는 새로 선임된 ‘명장’ 김태형 감독에 대한 기대 효과가, 대전구장(한화)의 경우 류현진 선수의 복귀 효과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신용데이터는 광주구장 인근 주변 상권 매출 증진에는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홈팀 KIA의 좋은 성적이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편, 매출이 증가한 경기장 인근 상권을 추가 분석한 결과 사직경기장은 중식(전년 대비 32.5% 증가), 광주구장은 생선·해산물(29.9%) 업종 매출이 가장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광주경총 ‘중소기업 ESG 실천’ 금요조찬포럼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은 지난 2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양해성 IBK 기업은행 ESG 컨설팅팀 팀장을 초청해 ‘기업 ESG 경영, 지역 중소기업 ESG 실천 컨설팅’을 주제로 금요조찬포럼을 진행했다. 〈사진〉

이날 강연을 맡은 양해성 팀장은 전국 1200개사의 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ESG 설계·도입분야의 전문가로, 강연에는 154명의 광주경총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은 ESG 경영의 개념, 공급망에 대한 이해, 산업안전에 대한 실사, 지역 중소기업의 ESG 현황, 중소기업들의 향후 방향성 순으로 진행됐다.

양 팀장은 ESG경영이 발달한 유럽의 사례과 국내 대기업의 사례를 들어 지역 중소기업들의 ESG경영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 등 규제기관과 평가기관의 정보 공시 압박 등에 따라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ESG 경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양 팀장은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ESG 경영 가운데, 대규모 연구·투자 및 전문 인력이 필요한 환경(E) 부문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연 자료에 따르면 환경(E) 분야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체계, 자원관리 등의 지표는 50%에도 미치지 못했고, 일부 지표는 0%로 나타났다.

사회(S) 분야에서는 노동, 인권, 정보보호 등은 국내 중소기업에서도 비교적 잘 운영됐지만, 다양성 및 양성평등 등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지배구조(G)에서는 정보공시 형식 및 윤리경영 등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팀장은 “갈수록 엄격해지는 공급망 실사지침 등에 따라 중소기업 등 협력사는 원청이 요구하는 공급망 실사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실사 결과가 미흡할 시 납품거래 관계가 중단될 수도 있는 만큼, 지역 중소기업 역시 ESG 경영을 위한 기초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삼성전자·SK하이닉스 내달초 하반기 채용 시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국내외 인턴·신입·경력 등 다양한 형태의 채용을 통해 반도체 인재 확보에 나선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다음 달 초 ‘하반기 신입사원 정기 채용’을 시작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메모리·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 등 직무별 채용 모집 공고를 낸다.

SK하이닉스는 다음 달 중 내년 2월 졸업 예정자와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경력 2~4년차를 대상으로 한 ‘주니어탤런트’ 전형을 진행한다.

SK하이닉스는 하반기 전임직(생산직) 직원 채용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반기를 통틀어 올 한해에만 세자릿수 규모의 생산직 인력을 뽑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의 잇단 채용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전남농기원-보해양조 농특산물 제품 유통 협약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들의 시장 진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지난 23일 보해양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남 농특산물로 개발한 가공제품의 시장 조기 진입에 협력키로 했다. 〈사진〉

이날 협약에 따라 전남농업기술원은 기술이전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전남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보해양조는 개발된 가공제품의 생산·판매·국내외 유통 채널 지원에 나선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전남 농특산물을 활용한 제품이 빠르게 시장으로 진입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농업기술원 관계자도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제품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지원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추석 앞두고 전남 사회적경제 제품 할인 판매

추석을 앞두고 온·오프라인에서 전남지역 사회적경제 우수제품에 대한 특별할인 행사가 열린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사회적경제쇼핑몰인 녹색나눔을 비롯, 남도장터, 우체국쇼핑몰 등 온라인몰 3개소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 온라인 할인 판매가 진행된다. 녹색나눔 앱을 통해 구입하면 3000원 추가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롯데아울렛 월드컵점 팝업스토어에서는 오는 9월 5일부터 14일까지 100여 개 전남 사회적경제 추석 상품 할인 행사를 연다.

이번 온·오프라인 할인행사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350개 업체가 참여해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전통주류, 생활용품 등 1000여 우수제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위기의 자영업자…대출연체 15조, 6곳 중 1곳 빚 안고 폐업

1분기 기준 대출 잔액 884조

자영업자(이하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연체 금액이 1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65만 5000곳이 평균 1억원의 대출을 해결하지 못한 채 폐업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884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328만 5000명의 개인사업자들이 은행권에서 570조 1000억원을,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신전문업체 등 비은행권에서 314조 3000억원을 빌려 쓰고 있다.

대출액 기준으로 보면 약 3분의 2를 은행권에서, 나머지 3분의 1을 2금융권에서 조달한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총 15조 5000억원 상당의 대출을 연체(5만원 이상, 10일 이상 원금·이자 연체 금액의 합계)하고 있었다.

18만 6000명의 자영업자들이 은행권에 5조 9000억원, 비은행권에 9조 6000억원 상당의 대출을 연체하고 있다.

정상적인 대출은 은행권이 주류를 이루지만 연체대출은 대출금리가 대개 연 10%를 훌쩍 넘는 비은행권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367만 3000개 사업장 중 65만 5000곳은 1분기 기준으로 폐업 상태였다. 폐업 사업장의 평균 대출 잔액은 9570만원, 연체금액은 812만원이었다. 대출 보유 사업장 6곳 중 1곳이 약 1억원의 대출을 그대로 안고 폐업 상태인 셈이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업장 중 폐업한 곳은 5만 2000곳이었다. 전체 대출 사업장 중 폐업 사업장 비중이 19.6%나 됐다. 한계에 몰리는 자영업자들이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으로 향하는 점을 고려하면 여러 금융업권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 로또복권 (제 1134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3	7	9	13	19	24	23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755,689,384	14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2,233,078	97
3	5개 숫자일치	1,034,236	3,961
4	4개 숫자일치	50,000	180,353
5	3개 숫자일치	5,000	2,807,905